

한솔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최정희 | 대표이사
한솔에코랜드(주)

▶ A Prologue

북분자로 유명한 전라북도 고창, 이 고장에 우리 농장(농업회사법인 한솔(주))이 자리 잡고 있다. 1995년 7월 상하면의 제 1농장을 시작으로 무장의 2, 3, 4, 5농장과 현재 고수면의 6농장까지 면적은 612,828㎡(약 185,000평)가 되며, 임대토지까지 포함하면 약 30만평의 면적에 수목을 재배하고 있다. 주요 수종으로 상록교목인 소나무, 소나무(등근형), 미추백, 섬잣나무, 가이즈카향 등과 낙엽교목인 느티나무, 왕벚나무, 대왕참나무, 메타세쿼이아, 때죽나무, 목련, 매화나무, 이팝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자귀나무, 상수리나무, 서부해당화, 배롱나무, 모과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등, 관목으로 회양목, 양매자, 수수꽃다리, 낙상홍, 화살나무, 조팝나무, 황매화, 불두화 등을 재배하고 있다.



농장 개장의 가장 큰 목적은 조경공사의 경쟁력 확보이다.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의 재료는 수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수목이라는 재료는 단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다. 이는 가격의 형성이 큰 편차를 이룬다. 확보한 수목이 많으면 공사 시 적기에 조달 할 수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안정적인 수입원이다. 관리에 따라 큰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농장 경영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큰 수입원인 것이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목 단가는 큰 편차를 보인다. 단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농장의 경영이 조경공사를 하는 업체로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몫을 하였다.

▶ A Place

고창에 농장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원가 절감과 품질이다. 타지에 비해 저렴한 토지가는 우선 순위였고, 비옥한 토양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 토양은 그 토질과 토성이 수목이 성장하기에 적합했고, 분을 만들기도 적당한 토양이었다. 토양 뿐만 아니라 기후에 있어서도 충분한 조건이었다. 멀지 않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강수량이 충분하다. 기후에 있어서도 중부 수종과 일부 남부수종까지도

수용 가능하여 수종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다. 인근 지역인 전주, 정읍 등은 오랜 관상수 재배경험을 가진 지역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관상수 재배에 필요한 숙련공 확보가 용이하다. 이러한 많은 장점은 지금의 한송을 있게 하였다.

▶ A Business

과거와는 달리 공사의 표준화, 기계화, 공법 향상 및 다양화 등으로 조경공사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 품질에 맞게 재료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하기에 수목의 수형 및 규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넓은 부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기계화, 성력화, 표준화, 숙련공의 기술 향상 등을 추구하고 있다.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 다양한 장비는 일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시설 등으로 성력화를 이루려 노력한다. 또한 수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무의 기록을 통해 숙련공을 양성하여 하자율을 줄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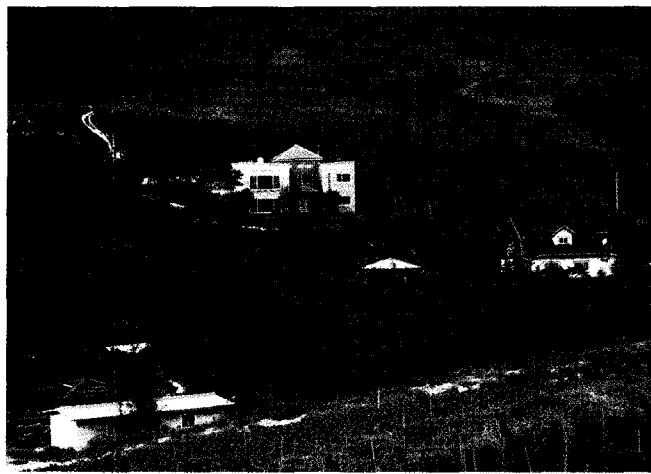
신기술 도입 또한 중요하다. 현재 포트식재 공법을 도입하여 시험 운영 중이며, 이는 수목의 정형화 및 하자율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근작업에 의한 기존 이식보다 세근이 풍부한 이식 작업은 생존율이 크게 향상될 것은 당연하다.

친환경 영농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천연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모든 수목에 적용시킬 수는 없는 양이지만, 나무를 파쇄하여 가축의 배설물을 섞어 일정기간 숙성시켜 훌륭한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식재공사 시 배출되는 고사목이나 전지 후 남은 가지를 폐기물로 배출 시키지 않고 농장으로 모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비용문제보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화학비료를 줄이는 효과를 준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농장의 특징이다. 잡초는 깎기 작업을 통해 제거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제초제로 인한 2차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 A Group

우리 회사는 대주주인 윤준열 회장을 중심으로 농장 경영뿐 아니라 건설 시공과 부동산 사업개발을 함께 하고 있다. 송림산업개발(주), 한솔에코랜드(주), 한송산업개발(주)는 건설 시공을 하는 업체로서 판교택지공사, 발산택지공사, 원주무실택지공사 등





택지개발공사 및 아파트공사, 골프장공사 등을 시공했다. 한송피에프브이원(주)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상가와 중국에 아파트 임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대전에 프린세스호텔과 모텔 퀸스타운을 함께 경영하고 있다.

▶ A Extra Story

우리농장은 수목을 재배하는 공간으로만 이용되지 않는다. 수목이외에도 돼지, 소, 닭, 오리 등 가축을 사육하고 양파, 감자, 고추, 상추 등 야채도 재배하고 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농장 직원들을 위한 식사에 이용하는가 하면 특별한 날 농장에 모든 직원들이 모여 농장에서 키워지는

신선한 육고기와 야채를 배부르게 먹기도 한다.

상하 1농장에는 별장이 있다. 별장은 농장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준다. 별장 주변에는 폭포와 계류, 그리고 그 계류를 따라 조형소나무와 가브리형소나무가 기교를 부리고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먼나무, 동백, 종려, 홍가시, 꽃댕강 등의 남부수종이 멋들어지게 자리잡고 있다. 소나무는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머리를 물로 향해있다.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끝은 수영장이다. 한 여름 여느 피서지보다 좋은 장소이다. 이외에도 Par3 Hole과 찜질방 시설이 있어 즐거움을 한껏 더해준다.

▶ A Future Story

수목은 같은 조건의 상태에서도 생육이 좋은 개체와 그렇지 못한 개체, 심지어 고사하는 개체도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도입은 계속 될 것이다.

현재의 소수만이 이용하는 농장이 아니라 체험 활동을 통한 관광농원화(化)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농장을 보여주고 싶다. 많은 공부와 새로운 도입을 시도하여 명품 농장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다.

또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와 같은 성장 광대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에 세계적인 농장 경영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꿈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 시키고 싶다. 🌱

